

공무 국외[스페인] 연수 보고서

【기간 : 2018. 1. 4.[목] ~ 1. 11.[목]】



서대문구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1
1. 연수목적	1
2. 연수기간	1
3. 연수국가	1
4. 연수단 구성	1
5. 주요 연수일정	3
II. 스페인 현황	4
1. 일반현황	4
2. 스페인 역사(略史)	6
III. 연수 내용	9
1. 메르까마드리드 공식방문	9
2. 의원 자체 세미나 I : 지방의회 활성화와 스페인의 지방자치제도	13
3. 의원 자체 세미나II : 스페인의 협동조합 현황	17
IV. 연수성과	21

□ 참고자료

1.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법 전문
2. 지역경제 기반 사회경제적 기업 지원 프로젝트(스페인 바르셀로나市)
3. 국내 기초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 국외(스페인) 연수 보고서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협동조합 등 분야 유관기관 현장견학을 통해 선진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원 의정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안목을 배양하여 구정에 반영함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해외우수 의회의 운영과 지방자치제도 등의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강화
- 해외 선진 문화탐방을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
- 제7대 후반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간 유대 강화

2. 연수기간

- 연수기간 : 2018. 1. 4.(목) ~ 1. 11.(목) 【6박8일】

3. 연수국가

- 연수국가 : 스페인
 - 주요방문지 : 마드리드, 코르도바, 세비야, 론다, 그라나다, 발렌시아, 몬세라토, 바르셀로나 등

4. 연수단 구성

- 연수인원 : 총19명(의원 12, 의회사무국 7)

연번	소속	성명	업무내용
1	의장	김호진	의원해외연수 기획 및 운영 총괄
2	부의장	이기수	

연번	소속	성명	업무내용
3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운영실태 분석
4		이진삼	
5		황춘하	
6		김혜미	
7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운영실태 분석
8		류상호	
9		장숙이	
10		홍길식	
11		김순길	
12		윤선경	
13	의회사무국	정옥진	행사지원 총괄
14		이일우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15		김형철	자료수집 및 의원보좌
16		신성운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
17		권경중	예산집행 및 정산
18		이명욱	의원보좌 및 사진촬영
19		문혁주	의원보좌

5. 주요 연수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1.4(목) 1일차	마드리드	KE913	12:45 18:25	- 인천국제공항 출발(비행시간 12시간 소요) 마드리드 공항 도착
1.5(금) 2일차	마드리드 톨레도	전용차량	전일	- MERCAMADRID 방문 - 톨레도대성당, 구시가지(세계문화유산) 문화탐방
1.6(토) 3일차	코르도바	전용차량	전일	- 세계 3대 이슬람 사원 메스키타사원 문화탐방
1.7(일) 4일차	세비야 룬다	전용차량	전일	- 세비야대성당, 유대인거리 방문 - 룬다 신·구시가지 시찰(국립문화재 지정)
1.8(월) 5일차	그라나다	전용차량	전일	- 알람브라궁전 등 문화탐방(세계문화유산)
1.9(화) 6일차	몬세라트	전용차량	전일	- 몬세라트 수도원 방문 - 의원 자체 간담회 I
1.10(수) 7일차	바르셀로나	전용차량	전일	- 세계적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구엘공원, 성 가족 대성당 등 방문 - 의원 자체 간담회 II
1.11(목) 8일차	인천	KE916	21:10	- 인천국제공항 도착(약 5시간 연착)

II 스페인 현황

1. 일반현황¹⁾

- 국 명 : 스페인왕국(Reino de Espana, Kingdom of Spain)
- 수 도 : 마드리드 (인구 : 314만명)
- 면 적 : 504,788km² (한반도의 약 2.3배)
- 인 구 : 4,642만명 (2015년 기준)
- 인구밀도 : 92명/km²
- 민 족 : 라틴족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와 함께 유럽의 3대 민족인 게르만족, 라틴족, 슬라브족중 라틴족으로 구성)
- 언 어 : 스페인어 (Castilla 지방어가 표준어, 기타 까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가 해당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
- 종 교 : 카톨릭 (국교는 아니나 인구 70%가 카톨릭 신자)
- 국가형태 : 입헌군주국 (국왕 : Felipe VI)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국민당 Rajoy총리(대행), 2011.12월 취임, 임기 4년)
- 의 회 : 양원제 (하원 : 350석, 임기 4년/상원 : 266석, 임기 4년)
- 외교기조 : EU 및 NATO 회원국 포함,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추구
- 국 경 일 : 10.12 (1492.10.12 콜럼부스의 미주대륙 발견일)
- 경제지표
 - 국내총생산(GDP) : 1조 2,302억불(세계 14위) (2015년, IMF)
 - 1인당 GDP : 26,517불 (2015년, IMF)
 - 경제성장률 : 3.5% (2015년, 통계청)
 - 교역규모 : 6,834억불(수출 3,249억불, 수입 3,585억불) (2014년, WTO)
 - 관광수입 : 652억불(세계 2위) (2014년, UNWTO)
 - ※ 해외관광객수 : 6,810만 명(2015년, 통계청)
 - 실 업 륜 : 20.9% (2015년, 통계청)
 - 산업구조 : 서비스업 74.4%, 제조업(에너지산업 포함) 17.5% 건설업 5.6%, 농수산업 2.5% (2014년, 통계청)

1) 스페인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화폐단위 : 유로
- 군 사 력 : 총병력 132,633명(2015)
- 기 후 : 동남부는 지중해성, 북서부는 해양성기후
- 지 형 : 산악지형 다수(전국의 ⅓정도가 산지이며 평균고도 해발 600m 이상으로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고지형)
- 의무교육 : 6~16세 (초등 6년, 중등 4년)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Felipe VI (펠리페 6세)
 - 총 리 : Mariano Rajoy Brey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
 - 외교장관 : Jose Manuel Garcia-Margallo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가요)
 - 하원의장 : Patxi Lopez Alvarez (파치 로페스 알바레스)
 - 상원의장 : Pio Garcia-Escudero Marquez (피오 가르시아 에스꾸데로 마르케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스페인 수교일자 : 1950. 3. 17
 - 한·스페인 교역(2015) : 45.1억불 (수출 : 21.7억불, 수입 : 23.4억불)
- 우리나라 지자체 자매 결연

연번	우리나라	스페인	자매결연일
1	경 기 도	카탈루냐 자치주	1999.03.15
2	경 상 북 도	카스티야 레온주	2005.11.09
3	부 산 광 역 시	바르셀로나	1983.10.25
4	서울시 강동구	카스티야-라만차주 세고비아市	2000.08.25
5	경기도 고양시	카탈루냐 사바델市	2001.02.19
6	경기도 오산시	카탈루냐 레우스市	2003.06.25
7	경 남 진 해 시	Villanueva de Alcardet市 ²⁾	1996년
8	경 기 파 주 시	가스띠야-라만차주 쿠엔카市	2007.09.25

2) 한국 최초 방문 서양인 Cespedes 신부 출신지

2. 스페인 역사(略史)³⁾

스페인은 많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다민족의 나라로 기원전부터 시작되는 이들의 역사는 참으로 굴곡지다. 지배와 탈환, 번영과 쇠퇴를 겪으며 지금의 스페인이 되었다. 크고 작은 도시들에는 스페인의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

○ 선사시대

약 35,000년 전 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 반도 남동쪽으로 건너온 이주민들이 최초의 스페인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며 스페인 곳곳에 거주한 이들은 자신들의 흔적들을 남겨 놓았다. 특히 2만 년 전의 시스티나 성당으로 불리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구석기 시대의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인류의 유산이다.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어 농경 생활과 정착이 이루어졌고 이후 지중해를 통해 페니키아인들이 가장 먼저 이베리아 반도에 도착, 뒤이어 카르타고인과 그리스인이 거주하며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다.

○ 로마 제국과 서고트 왕국의 지배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인들은 서기 50년에 이르러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점령했다. 군사적 정복 이후 건축, 경제, 문화, 행정 등 천천히 로마화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높이고 이베리아 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극장, 다리, 도로, 사원 등이 건축되었다. 스페인 도시에서 로마의 흔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그 중 세고비아의 수도교와 메리다의 원형 극장은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로마 제국에 있어 스페인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땅으로 자원의 공급처였지만 스페인에게 있어 로마의 지배는 만민법과 가톨릭의 전파 그리고 라틴어의 보급으로 스페인이 한걸음 나아가게 하는 문명의 조우였다. 5세기 초 로마 제국이 쇠퇴기에 들자 서고트족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입하기 시작했고 카스티야-레온 지역에 정착해 왕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서고트 왕국은 전염병과 내부 분열로 위기를 겪다가 711년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 이슬람의 지배와 가톨릭 왕들의 국토 회복

3) 김은하, 셀프트래블 스페인, 2017-2018 최신판, pp.40-41

711년,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슬람 군대는 서고트 왕국의 내부 분열에 힘입어 이베리아 반도를 빠르게 점령하며 스페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아랍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움미아드 왕조의 아브드 알라흐만이 반란을 피해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와 756년에 알 안달루스 왕국을 세웠다. 수도 코르도바는 인구 50만 명의 번영의 도시로 성장했는데 당시 건축된 이슬람 사원(메스키타)은 왕국의 전성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1031년, 내분으로 이슬람 왕국의 분열이 시작되면서 타이파(소왕국) 시대를 맞이한다. 당시 가톨릭 세력들은 스페인 북부 지역에 여러 개의 왕국으로 존재했으며 카스티야-레온 왕국, 나바라 왕국, 아라곤 왕국, 카탈루냐 왕국이 있었다. 1085년 톨레도가 기독교의 손으로 들어가고, 1212년 라스나바스 데 톨로사 전투에서 가톨릭 연합군에 패배하며 가톨릭 세력들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국토를 재정복하는 레콩키스타(국토회복운동)를 전개했다. 1248년 카스티야 왕국에 의해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세비야가 함락되고, 무하마드 1세가 세운 나스르 왕조도 250년간 꽃을 피웠으나 1492년 1월, 가톨릭 왕인 페르난도와 이사벨에게 그라나다를 내어준다. 이로써 800년간의 이슬람 지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베리아 반도는 다시 가톨릭으로 통합되었다.

○ 신대륙 발견 그리고 스페인 제국의 번영과 쇠락

1492년 4월, 이탈리아 출신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스페인어로는 크리스토팔 콜론)는 페르난도 왕, 이사벨 여왕과 대항해 합의를 다룬 산타페 협약을 맺었다. 같은 해 8월 3일 세 척의 배를 이끌고 항해를 떠나 10월 12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며 대항해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광산을 채굴하며 17세기 중반까지 엄청난 금과 은을 유럽으로 들여왔다. 세비야는 대서양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신대륙과 스페인, 스페인과 유럽 나라들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며 스페인 산업은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세우지 못한 채 방만한 재정 운영과 물가 폭등으로 펠리페 2세는 1596년 파산을 선언하고 만다.

페르난도 2세는 왕조 간 결혼을 통해 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세력을 넓히려 했다. 자신의 자녀들을 영국, 신성 로마제국의 후손들과 혼인을 맺게 했는데 합스

부르크 왕조는 이 혼맥을 통해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의 왕실과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하지만 카를로스 2세의 죽음으로 이 복잡한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왕위 계승을 두고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주변국들의 견제와 합의로 결국 프랑스 루이 14세의 손자 펠리페가 스페인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는 스페인 왕위 계승의 조건으로 프랑스 왕위를 포기하고 스페인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소유령을 내어주며 부르봉 왕조를 열었다. 이후 19세기 스페인은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았으며 그 와중에 스페인 남부 카디스에서는 헌법이 제정되었고 제1공화국이 탄생했다. 하지만 온건파와 급진파의 의견대립으로 1년도 가지 못하고 무너졌고, 신대륙의 독립운동으로 아메리카 식민지도 상실했다.

○ 혼란기와 민주주의의 정착

1931년 스페인의 제2공화국이 시작되었지만 우익과 좌익이 갈등을 빚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냈다. 결국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스페인 내전으로 이어지고 우익의 승리로 프랑코 독재가 36년간 지속되었다. 1975년 프랑코가 사망하자 부르봉 왕가의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즉위하며 새 헌법을 제정했다. 이후 스페인은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시작했고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며 유럽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

○ 스페인 지도



III 연수 내용

1. 메르까마드리드(MERCAMADRID) 방문

○ 메르까마드리드 개요⁴⁾

- 마드리드市가 51%, 중앙정부가 49%를 지원하여 ‘메르까마드리드’(Mercamadrid)라는 도매시장을 개설
- 메르까마드리드는 야채, 생선, 정육 등을 산지에서 수집하여 메르까도에게 신선한 제품을 싸 값에 공급
- 새벽 1시-4시 산지에서 물건이 들어오며 4시부터 상인에게 도매로 판매
- 산지 직송은 기본적으로 없으나 별도로 다른 곳에서 구입할 경우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까르푸 등 대형마트는 시청의 허가를 받음)
- 전통시장의 비공간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품경쟁력, 가격경쟁력, 서비스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상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 이상의 투자가 필요함
- 스페인의 경우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상품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드리드市 외곽에 대규모 유통물류단지인 메르까마드리드를 설립

메르까마드리드 내부⁵⁾



메르까마드리드 외부⁶⁾



4) 박주영,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동반상생 모델, 경기도 동반성장포럼, 2016. 9. 29.

- 메르까마드리드는 정부가 중소상인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유통물류센터임
 - 정부에서 안전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중소상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
 -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중소상인의 생계도 보호하기 위해 스페인의 메르까마드리드와 같은 농수축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도매상들을 입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Mercamadrid는 마드리드市 외곽의 남쪽에 176에이커 규모로 호텔, 냉장창고, 물류, 조달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이며 식품 안전 보증과 함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함. 식품 복합체 식량배급의 선두 주자로 1982년부터 보유하고 합작 Mercamadrid, SA에 의해 관리되며, 주식지분은 마드리드 시의회가 51.13 %, MERCASA 회사명의로 48.63%, 기타(길드와 유저) 0.24%
 - Mercamadrid는 거의 12,000,000명분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제공. 산업용 냉장, 저장, 물류, 운송, 취급 등(중앙 시장 생선과 과일과 야채 마드리드, 그리고 육류 시장, 식품 분야의 전문 다목적 기업과 서비스 산업의 요구를 모두 충족)
 - Mercamadrid는 반경 500km 이상 상권을 커버하며, 일일 평균 17,000대의 차량, 25,000명(구매자, 근로자, 방문자 포함)이 방문
 - 수산 시장은 42,600m², 과일 및 야채 시장은 124,400m², 육류 시장은 32,600m², 상업 및 행정 서비스의 영역은 31,450m², 서비스 및 상점(SYA)은 421,200m², 주차장 및 도로는 471,968m²

5) 사진출처 : 구글 이미지

6) 사진출처 : 구글 이미지

품질에 대한 신뢰 - 스페인 메르까마드리드 도매시장⁷⁾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마르까마드리드 도매시장을 찾아가면, 고속도로에 서나 볼 수 있는 커다란 톨게이트가 나온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마을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끝이 안 보이는 품목별 도매시장 건물과 상인들을 위한 건강센터, 병원, 기숙사, 은행, 호텔, 주유소, 어린이집 등 시장을 돌아다니다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메르까바르나와 함께 스페인 최대 규모의 식품물류업체로 뽑히는 메르까마드리드 도매시장은 해산물, 육류, 과일, 야채 등으로 건물이 나뉘어져 있고 도매상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찾아와 물건을 살 수 있다. 1975년 완공 이후 기존 마드리드 레가스피 가축시장과 농산물 시장의 역할을 대체했고, 1982년 수산시장을 시작으로 점차 규모를 늘려 1999년에 육류시장까지 개장함으로써 4만㎡가 넘는 면적으로 확장, 현재 8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2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자신의 점포에 '메르까마드리드' 물건을 가져왔다는 스티커를 붙여놓았고, 현지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품질과 신뢰성 부분에도 언제나 빠지지 않던 단어가 바로 '메르까마드리드'였다. 메르까마드리드 시장 관계자들과 입점해 있는 시장 상인들은 하나같이 당연하다는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다. 모든 품목은 생산지부터 이 곳 메르까마드리드까지 원스톱 공개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관련 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이 법으로 마련돼 있었다. 메르까마드리드 시장은 상인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있는데, 새벽 4시부터 물리는 고객들로 인해 피곤한 상인들을 위한 기숙사가 따로 마련된 것은 물론, 각 점포마다 2층에 별개의 공간을 마련해 그 곳을 쉼터 및 개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7) 2016. 7. 27. 중부매일 “소상공인진흥공단, 해외 우수시장 탐방”

※ 메르까마드리드 방문 주요 사진



2. 의원 자체 간담회 | : 지방의회 활성화와 스페인의 지방자치제도

○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지방의회의 발달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이념은 지역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은 직접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를 공정하게 선출하고,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반영되도록 함.⁸⁾
- 2016년 12월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함으로써 구체적인 개헌논의를 본격화함. 이번 개헌논의는 평화적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의 과정 속에서 불거진 제왕적·수직적 국가권력구조의 분권적·수평적 재편과 국민주권 중심의 새로운 민주주의 확립을 핵심의제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임.
-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차원에서 개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지방의회 건의안 마련이나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한 인식개선활동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자치분권은 곧 국민의 기본권 회복이자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로써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서대문구에서도 2018년 구정운영 기조를 자치분권, 협치, 혁신으로 표방함. 따라서 본 세미나는 한국과 스페인의 지방자치를 비교하여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스페인의 지방자치제도⁹⁾

- 스페인은 이베리아반도내 47개 주(Provincia) 및 5개의 도서주로 구성
※5개 도서주 : 지중해 모로코 연안에 Ceuta와 Melilla, 3개 도서그룹 Alhucemas, Pelon de Velez de la Gomera, Chafarinas 군도
- 1978년도 스페인 개정 헌법은 국가권력의 분산에 관해 특별한 모델을 설정해 놓고 있는 바, 1985년까지 이베리아 반도 및 카나리아, Baleares 군도를 망라하는 17개 지역이 중앙정부와 자치권을 놓고 교섭,

8)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백서, p.176, 2017. 9.

9) 스페인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스페인은 “Un Estado de las Autonomias”(State of the Autonomies) 형태로써 17개 자치정부로 구성됨.

- 스페인은 1978년 개정헌법에 의해 입법·행정상 중앙의 권한과 지방의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었으나, 중앙과 지방이 권한을 두고 갈등하였음. 시와 도의 관계를 보면 시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단위로 입법권은 없으며 조세권과 집행권이 있었음. 도는 입법권(행정적 성격의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과 직접 접하기 보다는 시를 지원하는 역할.
- 이미 1979년 역사, 언어적으로 가장 지역적 독자성이 강한 바스크 지방과 카탈루냐 지방에서 첫 지방자치 선거 실시
- 스페인 행정은 크게 Central Administration과 Local Administration 으로 구분되며, 헌법 제148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스페인은 3계층의 자치계층이며 17개 자치주 또는 광역자치지역(Comunidad Autonoma), 52개 도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Provincia), 8,11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시(Municipio)를 두고 있음.
- 자치행정의 기본단위는 Municipio 이고, Municipio의 규모에 따라 대도시(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는 수개의 구(Distrito)로 구분됨.
- 중앙정부는 각 광역자치 지역에 정부대표(Delegado del gobierno : 차관급)를 그리고 각 도에는 도지사(Gobernador Civil)를 임명, 파견하며 각 도는 중앙정부 수도(마드리드)에 연락사무소를 유지함.
- 자치단체장 선출방법 : 지방의회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선출(1차 : 절대과반수, 2차 : 단순과반수), 국왕이 임명, 4년 임기, 연임제한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¹⁰⁾
 - 자치주(comunidad autonomo) :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내각 설치

- 의회 : 광역지방자치단체(provincia) 관할구역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의원들로 구성(자치주에 따라 최대 135명~최저 33명)
- 내각 : 의회가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수상과 수상이 임명하는 각료로 구성

10)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광역지방자치단체(provincia) :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설치

- 의회 : 시(municipio)의원 선거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에 따라 시의원 중에서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
 - ※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 집행부 : 의장, 부의장, 의장이 임명하는 의원으로 집행부 구성
 - ※ 집행부의 장 : 의원 중에서 선출

· 기초지방자치단체(municipio) : 인구규모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형태 다양

- 의회 : 주민 250명 이상(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주민 250명 이하(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주민 100명 미만(의회 미설치, 주민총회제도 활용)
 - ※ 전체 시 평균인구 : 5,200명, 전체 시의 60% 이상은 주민 1,000명 미만
- 집행부 :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에서는 의원 중에서 집행부의 장을 선출, 주민 총회제도를 운영하는 시에서는 주민 직선

○ 성과와 과제

- 서대문구의회는 해외지방자치사례 조사를 통해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후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고 배웠음. 지방자치 역사, 환경 등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해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이양, 사무 조정, 자원배분 등은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과정의 주민참여 실태와 그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의가 있음. 이처럼 다양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향후에도 이를 중점 연구하여 우리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시청과 주청사 방문 사진



3. 의원 자체 간담회Ⅱ : 스페인의 협동조합 현황

○ 논의의 배경

-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대안적 사회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이는 협동조합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였기 때문임. 2009년 12월 UN총회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권장한 것도 같은 이유.¹¹⁾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2012년에 각각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는 공정무역과 사회적 기업, 지역화폐,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실현되고 있음.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구현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집중되기도 했음. 그러나 21세기 사회적 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던 것과는 달라야 함.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시작되었던 사회적 경제와도 그 내용과 폭이 달라야 할 것임.¹²⁾
- 서대문구는 2018년 역점사업으로 ‘협동조합 도시’를 표방하면서 모래내·서중시장의 상인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식 대형마트’를 설립·운영할 계획인바,¹³⁾ 스페인의 협동조합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함.

○ 협동조합의 의의¹⁴⁾

- 협동조합은 소비자, 소상공인, 소생산자 등의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출자자) 조합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함께 운영하고(운영자),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이용자) 생활을 지키고 향상하는 조직.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주주로 하며 무한한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인적인 결합체로 조합원들이 제한된 지역에 한정되어 생활하며,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고,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기본법안 검토보고서, p.2, 2011. 11.

12) 이광재·곽병준 지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엮음, 2017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청년 도시와 만나다, p.13

13) 2018. 1. 5. 한겨레신문

14)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

재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즉,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인데 반하여 협동조합은 인적결합을 바탕으로 함. 주식회사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1주 1표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는 관계없이 1인1표. 주식회사는 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만큼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많아지지만 협동조합은 이를 일정선에서 제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9월 영국 맨체스터에 개최된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협동조합 본질에 관한 ICA 선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제시했는데, 이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임.

- 협동조합 원칙

- 협동조합 원칙이란 협동조합이 조직의 특성을 살려 진정 협동조합다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지침인데, ICA의 협동조합 원칙은 1937년 처음 제정된 이후 시대여건에 따라 지금까지 2차(1차 : 1966, 2차 : 1995)에 걸쳐 수정됨.
- 현재 'ICA의 협동조합 원칙'은 ① 가입의 자유 ②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및 홍보 ⑥ 협동조합간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한국 협동조합 조직 현황

- 2001년 현재 한국에는 있는 협동조합 조직은 총 8개 조직

1차 산업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차 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3차 산업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소비부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이 시행됨에 따라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가능.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 (단, 금융 및 보험업 설립 불가) 자유자재로 연합회(협의회) 구성 가능.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능. 서민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의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가능

○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¹⁵⁾

-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여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규범적인 정의도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스페인 사회적 경제법은 사회적 경제법이 개별 조직에 대한 현행 법규를 대체하지 않음을 천명하면서도, 개별 조직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부재하여 해당 조직의 법적 안정성이 불비하므로,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통한 법적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운영되는 기본 원칙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외연을 개방적으로 규정.

자본보다 인간 및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한다. 이 원칙은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영,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영으로 구체화되며, 자본출자 보다 인간 및 단체에 제공한 노동과 서비스의 기여도 또는 사회적 목적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경제활동으로 얻은 결과는 구성원이 수행한 노동과 서비스 혹은 활동에 준해 조직의 목적인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배분됨.

단체의 내부적 연대는 물론 지역발전, 남녀기회 평등, 사회적 결속, 사회적 배제에 처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통합,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 창출, 개인 및 가족의 삶과 노동의 조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와의 연대를 촉진. 공공기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함.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공익적인 과제로 규정함으로써 진흥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고

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해외정책연구연수보고서, pp.80-97

구체적으로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난관을 제거
 -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촉진
 - 사회적 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진흥, 관련내용의 교육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전문교육을 촉진하고 기술조직혁신을 지원
 - 여성, 청년 및 장기실업자의 적극적 고용정책에 참여
-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다루는 거버넌스의 문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단체 구성요건과 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사회적 경제 진흥 위원회”로 아래와 같은 역할을 담당.

대표단체인 연맹, 조직, 연합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다루는 정부에 대해 대표성을 가짐을 명시하며,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대표성을 가짐.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의 부문별 주요 단체 및 대표적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대표들과 노동이민부가 정한 사회적 경제영역의 저명 인사 5명으로 구성되며 자문 및 협의체. 정부와 사회적 경제 간 협력, 조정 등을 담당

- 스페인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 목록의 작성과 공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서 포르투갈에서는 사회적 경제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를 작성, 공개함을 명시하여 보다 더 많은 정보 공시를 천명함. 더 나아가 국민계정 내에 사회적 경제 계정을 만들고 유지할 것을 천명함.

[사례1]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지방)

-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으로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교육·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
- 고용인원 10만명, 매출액 24조원 수출비율 58%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

[사례2]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 축구 클럽으로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
- 13만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 보유

IV 연수성과

- 이번 스페인 연수는 사회적 경제의 선진 체계 등을 살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이었으며 방문성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스페인은 식품유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임. 예컨대 메르까마드리드는 체계적인 물류시스템을 통해 각종 신선한 식품 및 채소, 육류 등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특히 자체 연수원을 두고 지역의 대학과 협조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점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 메르까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내에서 수익창출 순위가 3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인데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감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고 운영지원을 맡은 공기업 성격의 메르까사가 업체들에 사업부지 내 점포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식품 및 채소유통 부문의 대응 및 협업체계 개선에 많은 시사점이 있음.
 - 국외 식품물류체계 동향 파악을 통한 서대문구 마스터플랜의 효율적 추진과 구정 활용 방안 모색
 - 서대문구 정책과 연계 및 적용 가능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후 구의회에 안건 상정 등
 - 자치분권 개헌 논의에 따른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에 관한 논의
 - 바르셀로나市는 학생들에게 도시의 문화·사회·역사에 관한 배움의 장과 비평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비문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주변상가를 방문하여 상인들의 직업과 일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상업과 학교**’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음.¹⁶⁾

16)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제396호, 2016. 12. 5.

- 주요 내용 : 학생들이 가이드의 인솔 하에 지역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움, 상인들은 상가의 공간을 개방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설명, 판매 공간, 창고, 작업장의 공개 및 설명,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 실습, 학생들이 지역상가에 대한 그림을 그림, 학생들의 그림 중 14점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 선정된 그림으로 책갈피 50만 개를 제작하여 카탈루냐 지역의 전통적인 책의 날인 ‘성 조르디의 날’에 배포,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비판적이고 책임감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기타사항 : 이 프로그램은 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와 공동체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촉진하는 교육활동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2014년 바르셀로나市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에서 소개됨.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지역상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상인들의 작업을 배우며, 미래의 직업을 알 수 있는 도구로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점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의 “상업과 학교” 모습



지역상점을 방문해 상인들의 작업을 배우고 체험하는 학생들



학생들이 그린 지역 상점에 관한 그림으로 만든 책갈피

- 그 밖에 보행자우선의 가로환경 사례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도시디자인 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확인함.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市는 도난방지 시스템이 갖춰진 자전거 주차장을 시내 14곳에 시범 설치하여 향후 1년간 150대의 자전거를 수용할 예정.**
 - 바르셀로나 열린 도전(BCN Open Challenge)’ 대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자전거 도난의 최소화’에 관한 정책
 - 카탈루냐 지역 세 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바데비케바르셀로나(Vadeb-ikeBCN)에서 제작
 - 주요 내용 : Easy(30초 이내에 모든 과정 완료), Smart(스마트기기로 손쉽게 사용 가능), Safe(쉽게 절단되지 않는 세 개의 잠금장치 설치)를 모토로 제작
 - 서비스 이용방법 :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 후 비접촉식 카드 발급. 웹에서 빈자리를 확인 후 전화,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예약. 최대 72시간 주차 가능. 이용료는 연간 15유로(1만9천 원), 300유로(38만 원)의 자전거 보험 포함, 시간당 이용료는 0.02~0.47유로(25~600원) 사이
 - 기타 사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계 정책 추진. 안전이 강화된 자전거 주차시설의 대량 증축. 외진 자전거 주차시설에 감시 인원 배치. 지하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시설 제공. 해당 자전거 주차시설은 손쉬운 사용법으로 유럽 등지에서 특허를 획득
 - 시사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등에 개선사항 반영 검토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자전거 전용도로¹⁷⁾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자전거 주차장¹⁸⁾



사진 1. 자전거 도난방지 주차시설

사진 2. 이용자가 자전거를 헬멧과 함께 보관하는 모습

사진 3. 절단이 어렵도록 특수 제작된 삼중 잠금장치를 이용하는 모습

17) 사진출처 : ecobiketour.tistory.com 바르셀로나로 향하다

18)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제398호, 2017. 1. 2.

[참고1] 스페인 사회적 경제법 전문¹⁹⁾

I. 총 칙
국가 원수

5708 사회적 경제법 5/2011(3월 29일)

후안 카를로스 1세
스페인 국왕

이 법을 읽고 이해하는 자 모두에게 알린다.
의회가 이 법을 승인하였고, 짐은 이를 재가한다.

전 문

I

사회적 경제의 현대적 개념은 역사적으로 18세기 말에 출현해 19세기 전체에 걸쳐 여러 유럽 국가(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또는 스페인)에서 발전한 최초의 협동, 연합 및 공제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재단 및 협회를 포함한 19세기 기원의 전통적 개념에서 출발해,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특징짓는 성명들이 다양한 원칙을 중심으로 지난 세기 70~80년대에 여러 유럽국가에서 발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헌장》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단체로서 민주적 운영과 관리,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수익을 조직의 성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등 특수한 체제의 소유 및 이익 분배를 실행하는 조직 전체》로 정의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왕릉 위원회》는 벨기에에서 유사한 활동을 전개한다.

1992년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유럽 협회, 유럽 협동조합 및 유럽 공제조합에 관한 3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들을 토대로 유럽 협동조합법을 승인한 규정(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1435/2003, 2003년 7월 22일) 및 유럽 협동조합법 중 근로자 참여 관련 사항을 보완한 지침(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 2003/72/CE, 7월 22일)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은 협동조합을 여타의 경제 주체들과 달리 인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체적 운영원리를 토대로 운영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특징짓는다. 인간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원리는 남녀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퇴출 조건에 관한 특정 규정, 1인 1표의 투표권 규정 및 협동조합 자산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행사 불가에 반영되어 있다.

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해외정책연구연수보고서, pp.80-97

유럽 사회적 경제협회(Social Economy Europe)의 전신인 유럽 협동조합, 공제 조합, 협회 및 재단 회의(CEP-CEMAF)가 2002년 공표한 사회적 경제 원칙 헌장은 공동체법 및 관행의 집적에 사회적 경제 단체의 고유한 현실을 반영하는 일련의 원칙들을 도입한다. 이러한 원칙으로는 자본에 우선하는 인간 및 단체의 목적, 개방적 자발적 가입,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제어, 사용자와 공익의 결합, 연대 및 책임의 원칙에 대한 보호와 적용, 경영의 자율성 및 공공기관에 대한 독립성, 지속 가능한 발전 목적,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및 공익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명백한 구체적 현실은 이후 2009년 1월 26일자 보고서 2008/2250(INI)를 통해 유럽의회는 물론, 2000년 《사회적 경제 및 단일 시장》, 더욱 최근인 2009년 《다양한 유형의 기업》과 같은 다수의 의견서를 통해 유럽 경제사회 위원회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관점에서 진행한 비교 법학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 국가가 사회적 경제를 실질적인 지원과 공적 촉진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고유한 경제활동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고 인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II

스페인의 경우, 헌법 조항을 통해 최고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 단체의 법적 토대를 강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제1조제1항, 제129조제2항, 제9조제2항의 사회적 평등은 물론 헌법 상에 이 같은 단체의 뚜렷한 근거를 규정한 제40조, 제41조, 제47조의 구체적 조항들처럼, 일부 사회적 경제 단체를 일반적 혹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명시한 다수의 조항에서 드러난다.

1990년 이후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는 법률 31/1990(12월 27일)에 의거한 사회적 경제 진흥국립연구소(INFES) 창설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명시적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노동·사회보장부 소속 협동조합 및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총국을 대체한 이 연구소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 경제 단체의 진흥이었으며,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연구소 내에 관련 위원회를 창설했다. 1997년 이 연구소가 해체되자 사회적 경제 진흥 및 유럽사회기금 총국이 해당 기능을 이어받았다. 협동조합관련법 27/1999(7월 16일)은 사회적 경제를 진흥할 목적으로 이 위원회를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의 자문 및 협의체로 통합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명시한 칙령 219/2001(3월 2일)을 통해 발전시켜 나갔다. 따라서 이 위원회(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단체 전체에 가시성을 부여하는 기관이라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의 영토체계를 특징짓는 분권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 단체 일반에 관한 다수의 실질적 법규가 존재하며, 해당 규제 역시 지역 단위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개별 자치단체 내에 유사한 관할 기관이 존재하고, 지역 단위에 국한된 제도적 가시성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협동조합의 형태는 예컨대 연합노동, 소비, 주택, 농업, 서비스, 해양, 신용, 교육, 의료, 보험, 교통, 근로자 공동소유기업, 협회, 재단, 공제조합처럼 다양하지만, 모두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을 공유한다. 이 모든 단체는 앞서 언급한 스페인 헌법 조항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다른 종류의 회사 및 상업 분야의 기타 단체와 구별되는 구체적 특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사회적 경제에 존재하는 활기찬 동력은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독특한 특성의 여러 단체가 합류하도록 유도한다.

사회적 경제로 구분할 수 있는 일련의 잠재적 단체들 덕분에 그 범위가 한층 넓어지지만, 해당 가치의 내재적 특수성을 결정하는 원칙에 부합하고 특정 형태를 완벽히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사회적 경제법을 승인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시도들이 존재한다. 사회적 경제 스페인기업연맹(CEPES)이 서면 제안서를 통해 요구사항을 제기했으며, 2007년 3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해 같은 해 말까지 운영된 하원의 분과위원회도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연구하고 진흥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제안할 목적으로 관련 작업을 수행했다.

다른 한편 사회적 경제는 경제, 사회 및 환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정 정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러한 활동에 기여하는 만큼, 사회적 경제법의 승인 필요성은 지속 가능한 경제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와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 및 CEPES와의 합의를 통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2009년 10월 사회적 경제 법안 연구를 완료했다. 독립 위원회의 보고서 및 CEPES 제안을 토대로 관련 분야 대다수가 지지하는 공동 문안을 작성했다. 또한 법안 작성 과정에서 2010년 4월 29일 고용 및 노동업무 관련 분야별 회의를 통해 자치단체에 보고 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 역시 2010년 4월 29일 개최된 총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대다수 동의를 표명했다.

III

이 법의 기본 목적은 본 영역을 구성하는 단체들 각각에 관한 현행 법규를 대체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경제의 정의(定義)를 통해 더 나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

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체들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인정 및 개선된 가시성을 부여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출발해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모든 단체와 기업을 선별한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 단체 및 관련 대표 조직의 진흥, 촉진 및 발전을 공익과제로 인정한다. 또한 법적 실체 및 활동의 견지에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체의 대표 조직 및 관계당국 간 의사소통이 지닌 중요성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 본 영역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의 부문 간 연맹이 담당할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가 이미 기존의 국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 의거해 부문과 직접 연관 지음으로써 가장 적합한 법적 토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를 노동이민부에 연계된 자문 및 협의체로 복원한다.

이 법은 신규조항 9개, 추가조항 7개, 경과조항 2개 및 최종조항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을 구성하는 단체 일반 및 적용 가능한 진흥책을 위해 공통의 법적 토대를 확립하며, 제2조는 전술한 사항의 준수를 위해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단체를 지정한다. 제3조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자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단체로 정한다.

제4조는 모든 사회적 경제 단체에 공통적인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제5조는 제1항에 의거한 직접 지정 혹은 동일 조항의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회적 경제 단체를 선별한다. 제6조는 사회적 경제 단체의 목록에 대해 규정하며, 이 목록은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의 예비보고서에 기초해 노동이민부가 작성하고 갱신하되 어떤 경우에도 구성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

제7조는 사회적 경제 단체의 대표 원칙 및 대표성을 띠는 전국 단위 부문 간 연맹의 대표성 기준을 정한다. 제8조는 이 법의 또 다른 목적인 사회적 경제의 진흥 및 확산에 대한 인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관련 분야의 자문 및 협의체로서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를 규제하고 해당 기능을 정한다.

추가조항 제1조는 사회적 경제 단체에 관한 통계정보를 규정하며, 추가조항 제2조는 전국 단위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한다.

추가조항 제2조는 제8조제3항에 명시한 진흥, 확산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수단 및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다.

추가조항 제3조는 공기업으로서 독특한 사회적 경제 실체로 간주하기 위해 특정 법률에 근거한 스페인맹인협회(ONCE)의 특성을 명확히 밝힌다.

추가조항 제4조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생산성 제고 전략에 통합시킬 필요성을 명시한다.

추가조항 제5조는 이 법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중앙정부는 이 법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개의 경과조항이 있다. 경과조항 제1조는 이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이 시행되지 않는 동안 협동조합법 27/1999(7월 16일)의 추가조항 제2조를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경과조항 제2조는 주택협동조합이 이 법의 발효일 전에 시작한 조합 소유의 주택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허용한다.

다른 한편, 최종조항 제1조는 《경제활동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 및 조정》을 국가에게 부여한 헌법 제149조제1항제13호에 의거해 기본법을 구성하는 이 법의 권한 당국을 결정한다. 단, 헌법 제149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해 《국가의 목적에 준한 통계》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한 추가조항 제1조와 같이 국가의 자치조직 권한에 속한 제8조제3항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최종조항 제2조는 정부가 적용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조항 제4조는 이 법의 시행에 앞서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인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개별 사회적 경제 단체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에 관해 전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본 단체의 고유 원칙과 목적을 고려한 진흥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다.

제2조. 개념 및 명칭

제4조에 명시된 원칙에 입각해 구성원의 집단 이익이나 경제적·사회적 공익, 혹은 양자 모두를 추구하는 단체가 민간 부문에서 수행하는 경제 및 기업 활동 전체를 사회적 경제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자치단체에 속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회적 경제 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사회적 경제 단체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운영한다.

- a) 자본보다 인간 및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한다. 이 원칙은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영,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영으로 구체화되며, 자본출자보다 인간 및 단체에 제공한 노동과 서비스의 기여도에 준한 의사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b) 경제활동으로 얻은 결과의 적용은 주로 남녀 조합원 혹은 구성원이 단체의 목적인 사회적 목표를 위해 수행한 작업과 서비스 혹은 활동에 준해 결정한다.
- c) 단체의 내부적 연대는 물론 지역 발전, 남녀의 기회 평등, 사회적 결속, 사회적 배제에 처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통합,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 창출, 개인 및 가족의 삶과 노동의 조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와의 연대를 촉진한다.
- d) 공공기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한다.

제5조. 사회적 경제 단체

1.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 특별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산물가공업체 및 이전 조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특정 법률에 의거해 설립한 특수 단체들이 여기에 속한다.
2. 이전 조항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운영 규칙을 토대로 경제 및 기업 활동을 수행하며, 이 법 제6조에서 규정한 단체 목록에 포함된 단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3. 사회적 경제 단체는 모든 경우에 실질적인 특정 법률의 규제 대상이다.

제6조. 사회적 경제 단체 목록

노동이민부는 이 법이 규정한 원칙을 고려하고 자치단체에 존재하는 기존 목록을 참고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가 작성한 예비보고서에 기초해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 목록을 작성하고 갱신한다.

사회적 경제 단체 목록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본 목록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공시한다.

제7조. 조직 및 대표 단체

1. 사회적 경제 단체는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기 위해 협회를 조직할

- 수 있으며, 이 같은 협회는 특정 법률 혹은 해당되는 경우 협회의 권리를 규제하는 구성법 1/2002(3월 22일)에 의거해 상호 연합할 수 있다.
2. 대표성을 띠는 전국 단위의 부문 간 연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적어도 이 법 제5조에 명시된 다양한 유형의 단체 대부분을 규합한다.
 - b)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에서, 직접적인 형태로 혹은 대표성 절차에 준하는 부문 간 연맹들의 중간 조직을 통해, 전체 가입 회사 또는 단체의 최소 100분의 25를 대변한다.
 - c) 최소한 제5조에 명시된 단체 유형의 대부분을 대변하되, 이 단체들이 가입한 해당 연맹은 부문 간 연맹에 소속된 유형별 단체 혹은 기업 전체의 최소 100분의 15를 규합해야 하며, 동시에 부문 간 연맹은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에서 대표성 절차에 준해야 한다.
 3. 전국 단위의 부문 간 연맹은 자신의 경제 사회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참여 기관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다. 나아가 중앙정부 기관, 사회적 경제 단체 대다수를 규합한 전국 단위 조직 및 법적 지위와 자체 활동으로 인해 대표성을 띠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4. 각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조직, 연합 혹은 연맹도 자신의 경제 사회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정부의 제도적 참여 기관에 대해 자치단체가 규정한 방식에 준한 대표성을 갖는다.

제8조. 사회적 경제의 진흥 및 확산

1. 사회적 경제 단체 및 관련 대표 조직의 진흥, 촉진 및 발전을 공익 과제로 인정한다.
2. 공공기관은 해당 권한 영역에서 다음의 사항을 사회적 경제 진흥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 a) 사회적 경제 단체의 경제 활동 개시 및 전개를 저해하는 난관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특히 사회적 경제 단체 창설에 관한 행정 수속의 간편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b)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기획에 편의를 제공한다.
 - c) 사회적 경제의 원칙 및 가치를 진흥한다.
 - d) 사회적 경제 단체와 관련된 전문 교육 및 재교육을 촉진한다.
 - e) 사회적 경제 단체 기업가들이 기술 및 조직 혁신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f) 사회적 경제 부문과 관련해 경제적·사회적 기획전개를 진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g) 특히 여성, 청년 및 장기 실업자처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사회적 경제 단체를 참여시킨다.
 - h) 다양한 수준의 교육 관련 연구 계획에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을 도입한다.

- i) 농촌 개발, 사회 의존성, 사회통합과 같은 분야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 3. 이 법의 적용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진흥, 확산 및 촉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단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개하는 경제, 기업 및 사회 활동에 대한 여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일반적 측면에서 노동이민부를 매개로 한 중앙정부에 속한다.
- 4. 사회적 경제의 진흥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존중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진흥 활동 전개에 필요한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협동 체제를 추진한다.

제9조.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

- 1.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에 대한 자문 및 협의체로서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며, 노동이민부를 통해 중앙정부에 통합되거나 본 정부의 위계구조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사회적 경제 간의 협력, 조정 및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한다.
- 2. 본 위원회는 부여받은 권한에 의거해 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a) 사회적 경제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또는 규정안 작성에 관해 보고하고 이에 협력한다.
 - b) 노동이민부 및 기타 부처가 요청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c) 이 법 제6조에 의거해 노동이민부의 사회적 경제 단체목록 작성 및 갱신을 위한 예비보고서를 작성한다.
 - d)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및 진흥 프로그램을 보고한다.
 - e) 사회적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및 문제, 특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식 강화, 제도적 실체 및 국제적 확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 f) 이 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을 반드시 존중하고 진흥하도록 조치한다.
 - g) 이 법의 첫 번째 추가 조항에 의거해 사회적 경제 단체의 통계 자료를 위한 조치 채택에 관해 예비보고서를 발행한다.
 - h) 법률 및 규정이 부여하는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한다.
- 3.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대표적 지역 단체들이 구성한 협회, 전국 단위의 대표적 부문 간 연맹, 기 언급한 부문 간 연맹이 대표하지는 않으나 이 법 제5조에 명시된 사회적 경제의 부문별 주요 단체 및 대표적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대표들과 노동이민부가 정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저명 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
- 4.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정부 고용청의 청장이 겸임한다.
- 5. 본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은 규제 발전의 대상이며, 공공행정 법제도 및 일반 행정절차 관련법 30/1992(11월 26일) 및 중앙정부 조직과 운영 관련법 6/1997(4월 14일)에 의거한 합의제기관 관련 규정에 준한다.

추가조항 제1조. 사회적 경제 단체에 관한 통계 정보

노동이민부는 여타 부처 및 사회적 경제 단체 등록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의 예비보고서를 토대로 본 단체는 물론 관련 대표 기관에 관한 통계 정보가 이 법 제6조에 규정된 목록의 분류에 맞춰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추가조항 제2조. 재정지원

제8조제3항에 명시된 진흥, 확산 및 교육 활동 추진과 제9조에 규정된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의 운영은 2010년 노동이민부가 배정한 실질적 예산으로 충당 하되, 2010년도의 즉각적 실행계획이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는 물론 차후연도 에도 2011년~2013년 중앙정부 긴축계획에 의거해 지출의 순증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진흥, 확산 또는 교육과 관련해 특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함으로써 관련 자원의 조달을 구체화한 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추가조항 제3조. 특수 단체인 스페인맹인협회(ONCE)의 법적 토대

스페인맹인협회(ONCE)는 이 법 제5조제1항에 의거해 특수한 사회경제 조직으로 간주하며, 기본적으로 ONCE의 재구성에 관한 칙령 358/1991(3월 15일) 및 현행 법규에 근거한 특정 적용 규정은 물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 협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정한다. 본 협회의 경제적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복권 운영자로서의 특성에 관한 특징적 기본 측면은 본 추가조항에 반영되어 있다. ONCE는 맹인 및 중증 시각장애를 지닌 사람의 개인적 자율성과 온전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성격의 공기업으로서 고유한 특정 법률에 준하며,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유한 법인격과 온전한 자가 운용 및 조직 능력을 갖추었으며, 사회 경제적 기업 활동과 관련해 연대, 비영리 및 공익을 특징으로 하며, 국가 보호령에 의거해 국토 전역에서 공공행정의 위임 기능을 수행하며,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복권과 관련된 일체의 공적 승인을 향유한다.

추가조항 제4조. 생산성 제고 전략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통합.

중앙정부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전략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한다.

추가조항 제5조. 중앙정부의 보고서

중앙정부는 이 법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이 법의 적용에 따른 효력 및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조항 제6조. 심리학 학사 소지자 혹은 심리학 분야 대학원 졸업자의 보건 활동 수행

1. 중앙정부는 이 법의 발효 후 12개월 이내에 《보건심리학》을 학위 및 규제를 요하는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본 직종의 자격 획득을 위한 조건 및 직무를 정의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2. 이전 항에 명시된 법이 시행되기까지 일시적으로 심리학 학사 소지자 혹은 대학, 센터 및 학위 명부에 보건과학 관련 지식으로 등록된 심리학 분야의 대학원 학위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특정 교육을 이수했음이 증명된 경우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a) 성격심리학, 심리 평가 및 치료 혹은 임상심리학 및 보건심리학의 교육 분야와 연관된 정규 교과 일정에 따라 해당 대학원/학사 과정을 이수한다.
 - b) 제1호에 명시된 분야와 관련해 적어도 실무 교육 100시간을 포함한 최소 400시간(또는 유럽동일학점제 상응 점수)의 대학원 보충교육을 받는다.
3. 이전 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해당 의료 센터, 시설 및 진료소 목록에 심리 진료 혹은 진찰을 등록하도록 허용한다.
4. 국립보건시스템 센터, 시설 및 진료소에서 본 시스템의 공통 서비스 부문과 관련해 1차 진료 및 전문진료 의료활동을 전개하거나 이를 위해 채용된 심리학자는 보건과학의 전문분야를 결정·분류하고 전문의료 교육 체제의 특정 측면을 개발한 칙령 183/2008(2월 8일)의 부속서 1 제3항에 명시된 임상심리학의 전문심리학자 공식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추가조항 제7조. 경제적사회단체 촉진 프로그램.

중앙정부는 이 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본 영역에서 특유의 입지를 굳힌 단체는 물론 가장 소외된 영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단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본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영한다.

첫째, 대표적 사회적 경제 단체,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 및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 단체가 부당한 지장을 겪지 않고 모든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약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검토한다.

둘째, 대표적 사회적 경제 단체,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 및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근로자공동소유기업 관련법 4/1997(3월 24일)을 개정하고 업데이트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셋째, 사회적 행위를 전개하는 단체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 단체에 적용되는 보조금 일반법 38/2003(11월 17일)의 규제 절차를 간편화할 목적으로 해당 시행 규정을 검토한다.

경과조항 제1조. 사회적 경제 단체 진흥위원회에 적용되는 경과 조치

제9조 제5항에 명시된 시행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는

협동조합법 27/1999(7월 16일)의 추가조항 제2조를 계속 적용한다.

경과조항 제2조. 주택협동조합

협동조합법 27/1999(7월 16일)의 제89조제4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이 법의 발효일 전에 시작한 조합 소유의 주택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와 이에 관련된 일반 조건은 사전에 총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와 진행하는 거래는 조합원 거래의 최대 100분의 50으로 제한한다. 총회는 판매 또는 임대로 획득한 수익의 처분도 결정한다.

최종조항 제1조. 권한 당국

이 법은 《경제활동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 및 조정》을 국가에게 부여한 헌법 제149조제1항제13호에 의거해 기본법을 구성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기본법적 성격의 예외로 한다.

- a) 국가 기관 혹은 중앙정부 소속 기관의 조직 및 운영을 명시한 이 법의 내용(제8조제3항 및 제9조).
- b) 헌법 제149조제1항제13호에 의거해 《국가의 목적에 준한 통계》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한 추가조항 제1조.

최종조항 제2조. 중앙정부의 권한

중앙정부는 해당 권한 영역에서 이 법의 적용 및 시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최종조항 제3조. 입법 칙령 1/1994(6월 20일)로 승인한 사회보장 일반법의 개정 문안 수정

입법 칙령 1/1994(6월 20일)로 승인한 사회보장 일반법의 개정 문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첫째, 추가조항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실업보호를 비롯해 징세 혹은 제재의 성격을 띠지 않는 사회보장 관련 후생과 기타 행위의 수속 절차는 공공행정 법제도 및 일반 행정절차 관련법 규정에 준한다. 단,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중 직무 명령에 대한 거부 및 재검토 행위 관련 특기 사항, 추가조항 제50조, 본 추가조항 혹은 적용 가능한 기타 규정을 함께 고려한다.》

둘째, 추가조항 제50조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RED 시스템(전자문서 전송시스템)을 통해 전송 책임자가 전자적으로 발송해야 하는 자료를 토대로 전송하거나 발행한 행정행위의 통지는 반드시 사회보장 웹사이트에서 전자, 컴퓨터, 혹은 텔레매틱을 이용한 수단을 통해 실행해야

하며, 해당 자료의 대상 기업 혹은 개인에게 유효한 동시에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 단, 대상 기업 혹은 개인이 이 같은 웹사이트 상의 통지를 직접 본인에게 혹은 제3자에게 발송할 것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공행정 법제도 및 일반 행정절차 관련법 30/1992(11월 26일)의 제59조제 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항에 명시한 대로 사회보장 웹사이트를 통해 혹은 이해당사자의 주소로 직접 전송하지 못한 통지는 전송한 웹사이트의 사회보장 공고 및 공지 게시판에 독점적으로 게재하며 여타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공개하지 못한다.

사회보장 공고 및 공지 게시판에 통지를 게재한 후 역일 기준으로 20일이 지나면, 통지를 실행한 것으로 이해하며, 해당 수속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절차를 속행한다.

사회 보장 공고 및 공지 게시판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청에서 관리한다. 게시판을 통한 통지는 노동이민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실행한다.》

최종조항 제4조. 발효

이 법은 《중앙정부 관보》에 공시한 날로부터 1개월 후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집은 모든 스페인 국민, 즉 개인 및 관할 당국에게 이 법의 준수 및 집행을 명한다.

2011년 3월 29일, 마드리드.

후안 카를로스 R.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참고2] 지역경제 기반 사회경제적 기업 지원 프로젝트(스페인 바르셀로나市)²⁰⁾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 중이며, 기존 사회경제적기업의 활성화를 돕는 한편 관련 기업의 창업을 돕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건립할 예정

○ 개 요

- 목 적 : 지역사회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대안적인 사회경제적 모델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과 창업을 지원
- 대 상 : 사회경제적기업을 추구하는 총 4,718개의 기업체(제3섹터 2,400개, 노동조합 1,197개, 협동조합 861개,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한 창업팀 260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기업 ‘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가 다양한 지원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체나 창업팀에게 필요한 자원 제공
 - 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도시 내 일자리 창출
 -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건립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

○ 대표적 지원사업 사례

- 지역 주민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위주
- 쿠폴리스(Coopolis)
 - 옛 방직공장인 ‘칸 바뜨요’ (Can Batllo)의 재생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민 협동조합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기업 지원 기구
 - 공공과 주민이 협력해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경제적기업 지원에 특화된 기구로 운영할 계획
- 비씨허브(BiciHub)
 - 1987년 도시 내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모임인 비씨클롯(Biciclot)이 협동조합으로 성장
 -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자전거 수리와 자전거 여행 인솔 등

20)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정책동향 제412호, 2017. 8. 7.

다양한 활동

- 최근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추진계획’의 지원으로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혁신지구인 22지구의 중심지로 이전할 예정
- 자전거에 관한 각종 창업과 협력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
- 칸 깔로파(Can Calopa)
 - 칸 깔로파 지역의 올리베라(L' Olivera)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농업 프로젝트로, 3만m²의 농지에서 포도를 재배해 와인을 제조
 - 사회경제적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와 노동의 통합을 추구

[참고3] 국내 기초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 광주광역시 서구²¹⁾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잇는 1洞 1사회적경제조직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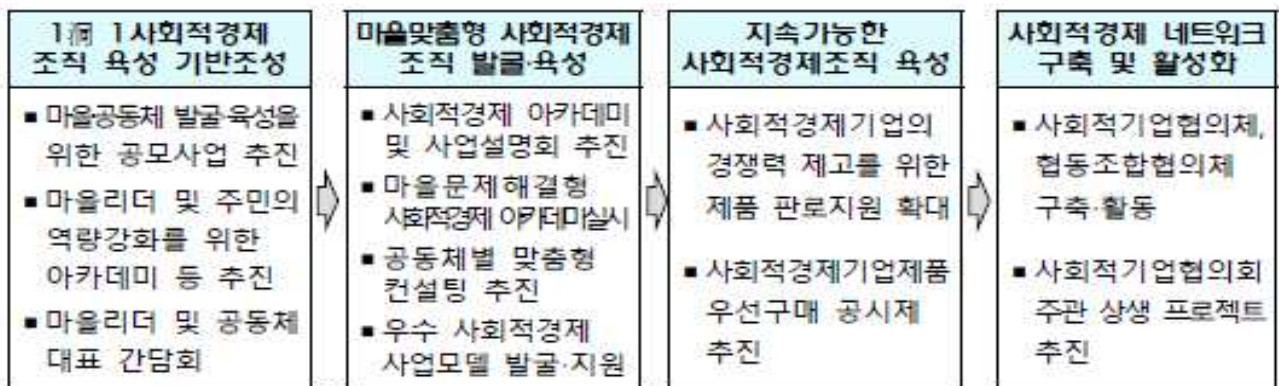
I 추진배경

- 마을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나, 리더 및 참여자의 기업화 의지가 약해 지속가능성 저조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융합한 사회적경제공동체 육성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구현

II 추진목표



III 추진체계



2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충남연구원, 2017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료집, pp.223-230

IV 주요추진내용

1 1洞 1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기반조성

마을만들기로 육성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

- 마을공동체 발굴·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 2014 ~ 지속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현황 : '15. 74건/397백만원→'16. 103건/1,283백만원

2017 서구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결과

- 선정 현황 : 59개 단체 총 196,118천원 예산 규모(자부담 포함)
- 공모 분야 :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 씨앗, 커뮤니티 공간 총 4개 분야

- 마을리더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등 추진 : 2014 ~ 지속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주민교육

- ▶ 목적 : 사회적경제 인지도제고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기업 등 새로운 모델 발굴
- ▶ 대상 :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마을주민
- ▶ 실적 및 교육방법 : 7회, 135명 /방문교육



마을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현장견학

- ▶ 목적 : 리더 역량을 키워 소극적 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추진자로서 소명 부여
- ▶ 대상 :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마을리더
- ▶ 교육방법 : 설문으로 마을 니즈(needs) 파악 관심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실시



마을 씨앗 학교 '설레임'

- ▶ 기간 : 2017. 3. 9. ~ 3. 10.
- ▶ 대상/장소 : 서구주민 / 구청 대회의실
- ▶ 내용 : 참여자 좋은마을만들기 씨앗 사업 참여
- ▶ 참여 : 38개단체 114명



- 마을리더 및 공동체대표 간담회

사회적경제공동체 육성을 위한 간담회

- ▶ 일시 : 2016. 12. 13.
- ▶ 대상 : 마을리더 및 공동체대표
- ▶ 장소 : 서구청 중회의실
- ▶ 내용 : 사회적경제기본교육 및 '17년 사업추진계획



2 마을 맞춤형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육성

공동체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 마을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및 사업설명회 추진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 기 간 : 2017. 1. 16. ~ 1. 25.
- ▶ 대상/장소 : 16개동 699명 / 동 주민센터
- ▶ 내 용 : 사회적경제 기초 교육 및 동별 사회적경제 모델 강의



마을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 설명회

- ▶ 일 시 : 2017. 2. 24.
- ▶ 대상/장소 : 주민 공동체
- ▶ 내 용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 사업 설명 등



○ 마을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실시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3강)

- ▶ 일 시 : 2017. 3월(7, 8, 15일)
- ▶ 참여현황 : 13개동 18개팀 66명
- ▶ 교육내용 : 협동조합 운영원리, 유형별 특징과 사업화 전략,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등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3강)

- ▶ 일 시 : 2017. 3월(21, 22, 28일)
- ▶ 참여현황 : 12개동 14개팀 50명
- ▶ 교육내용 : 사업전략(사업모델 수립, 공동체별 사업구상 등)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현장견학

- ▶ 일 시 : 2017. 3. 29.
- ▶ 참여현황 : 9개동 10개팀 30명
- ▶ 견학내용 : 석교마을앤사람사회적협동조합 등 3개소 방문하여 운영상 어려움 및 해결방안 공유



사회적경제 심화교육 (3강)

- ▶ 일 시 : 2017. 4월(4, 5, 6일)
- ▶ 참여현황 : 12개동 14개팀 45명
- ▶ 교육내용 : 사업전략 및 조직관리 방안 등 공동체별 멘토링



공동체별 사업계획 발표 및 우수공동체선정

- ▶ 일 자 : 2017. 4. 11.
- ▶ 참여현황 : 8개동 9개팀 38명
- ▶ 보고방식 : 10분발표 후 5분 질의응답
- ▶ 선정기준 : 공동체성, 사업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 평가와 상호평가 합계(5개팀선정)



○ 공동체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4월 ~ 지속

- 대 상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참여 공동체
- 내 용
 - 우수 공동체(4개) : 인턴십 프로그램, 조합원 역량 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등 공동체 요구에 따른 컨설팅 및 공모 사업 참가 지원
 - 기타 공동체 : 수시 활동 내용 상담, 현장 방문을 통한 공동체 성장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공모 사례

- ▶ 광주시 교육공동체 공모 사업 선정(서창동, 화정1동 공동체)
- ▶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2017년 제1회 광주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가 대상 선정(상무2동 공동체)
 -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전등스위치 설치를 위한 재료비 등 모금



○ 사례별 현황

경력단절여성 취업 및 아이돌봄

- ▶ 공 동 체 : 누력놀이단 (상무1동)
- ▶ 조직형태 : 협동조합
 - 발기인 9명, 출자액 900천원
- ▶ 주요사업 : 전문놀이강사 양성 및 출장 놀이 교육
- ▶ 진행사항
 - 1급 자격증 과정을 통해 참여조합원 역량 강화
 - 놀이학교 일주 2개교, 76회 교육 시행 중
 - 법인 정관 작업중/18년 마을기업 공모예정



취약계층 및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 ▶ 공 동 체 : 쌍쌍일촌 맥가이버(상무2동)
- ▶ 조직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 발기인 5명, 출자액 22,000천원
- ▶ 주요사업 : 원룸 관리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 진행사항
 - 광주NGO재단 2017 클라우드 펀딩 아이디어 공모 선정
 - 상무2동 원룸 사업자 등과 사업협약서 작성
 - 선진지 견학 : 무엇이든 협동조합
 - 법인 정관 작업중/'18년 사회적기업 공모예정



어르신을 위한 세대공감 SNS교육

- ▶ 공 동 체 : 고리 (화정1동)
- ▶ 조직형태 : 협동조합(발기인 3명, 출자액 3,000천원)
- ▶ 주요사업 : 자영업자 SNS활용 교육 및 강사양성
- ▶ 진행사항
 - SNS교육 전문가 지역 모임 실시 : 5월말
 - 주민대상(노인당 등) SNS교육 실시 : 5회
 - 법인 정관 작업중/'18년 사회적기업 공모예정



주민들의 소통 공간 및 지역활성화

- ▶ 공 동 체 : 서창들녘협동조합(서창동)
- ▶ 조직형태 : 협동조합(발기인 6명, 출자액 6,000천원)
- ▶ 주요사업 : 마을전통카페 및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
- ▶ 진행사항
 - 광주광역시 교육공동체 공모 사업 선정
 - 향토문화마을 체험관내 마을카페·로컬푸드매장
오픈 예정 : '17. 7월중
 - 협동조합 설립 / 마을기업 공모예정



1) 우수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

- 목 적 : 마을형 우수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으로
사업 조기 안정화 지원
- 사업기간 : 2017. 9. ~ 11.
- 지원대상 : 마을형 우수 사회적경제공동체
- 지원내용 : 시설공사, 재료비, 홍보비, 임차비, 경상비 등
- 소요예산 : 20,000천원(최대 10,000천원 한도, 구비 100%)

3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사회적경제 홍보관운영, 나눔장터, 우선구매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 및 주민들의 인식 제고 추진

○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나눔 활동 실천을 위한 장터운영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 ▶ 일시 : '14. 10월 / '15. 11월 / '16. 5월
- ▶ 장소 : 월드컵경기장/구청/시민공원
- ▶ 참여 : 기업체 70개, 주민 1,000여명
- ▶ 내용 : 이동홍보관, 장터운영, 나눔행사 등



○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 적극 추진

키오스크 설치 등 홍보관 운영

- ▶ 목 적 : 사회적경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 ▶ 일 시 : 2016. 10월 ~ (상시운영)
- ▶ 장 소 : 구 청사 1층 로비
- ▶ 내 용 :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 정보제공, 사회적경제 홍보 동영상 상영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 실시(총 4회)

- ▶ 일 시 : 2017. 2. 10. (반기별 시행)
- ▶ 장 소 : 서구청 회의실
- ▶ 참 석 : 회계·서무 담당자 / 전 직원
- ▶ 내 용 :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 공공물품 우선구매 지원 필요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통한 실적상승

연도별 구매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율
금 액	775백만원	2,276백만원	193%증

▶ 2016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전국4위달성

고용노동부 제2017-184호(17. 4. 28)

순위	기관명 (기초지자체 대상)	총구매액 (A)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 (B)	비율
4 (전국)	광주광역시 서구	7,035백만원	2,276백만원	32.36

구매실액(단위 : 백만원)



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협의체 구축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워크숍·간담회를 통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사회적기업협의체, 협동조합협의체 구축·활동

사회적경제 주체 워크숍·통합간담회(년1회) 추진

- ▶ 추진실적 : 3회 ('15. 11월, '16. 3월, 11월)
- ▶ 대 상 :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 및 직원
-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 주체간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 주체 및 직원간 교류와 통합협의체 구축 논의



○ 사회적기업협의회 주관 상생 프로젝트 추진

- 목 적 : 사회적기업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적기업 상생프로젝트 추진
- 추진시기 : 2016. 4 ~
- 재원확보 :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지역주민의 후원 및 재능기부, 자원봉사

상생프로젝트 시즌2 「서구어르신 행복한마당」 추진

- ▶ 일 시 : 2017. 5. 25.
- ▶ 장 소 : 광주 서구 빛고을 체육관
- ▶ 참석현황 : 300여명(관내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 ▶ 내 용 : 회혼식 행사, 장수사진촬영, 식사제공, 건강웃음 콘서트 등



☞ 상생프로젝트 시즌 1 「독거어르신 행복드림 생신잔치」

- ▶ 실시횟수/장소 : 3회('16년 4, 7, 11월), 노인종합복지관, 시영·쌍촌종합사회복지관
- ▶ 참여인원 : 600여명(생신 어르신 60명, 지역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 ▶ 내 용 :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 생신잔치 및 효도공연, 식사대접



V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1 향후계획

- 마을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지속 추진
- 컨설팅,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 등 교육을 통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육성 지원

2 기대효과

- 마을공동체 사례별로 맞춤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마을 주민의 착한소비를 통해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형성